우연의 과학

다케우치 케이 지음

우연은 잡음 또는 오차

누구나 일상에서 우연을 믿기는 힘든 일이다. 세월호 같은 참사를 접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우연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도 모두 우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대체 우연이란 무엇일까.

도쿄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 다케우치 케이가 쓴 '우연의 과학'을 보면 우연성에 대처하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된다. 저자는 전공분야 확률론에서 시작해 학문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한다.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가 아무렇게나 나오지만 반복해서 던지면 모든 숫자가 6분의 1에 가깝게 나온다. 복수의 우연들이 더해지고 빼지면서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른바 큰수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다. 여기서 우연은 잡음 또는 오차 같은 것으로 저자는 이를 소극적 존재, '덧셈적 우연'이라고 한다. 〈윤출판·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우리 한시 삼백수

정 민 편역

마음 정화시키는 한시 300수

고전과 관련된 전방위적 분야를 탐사하는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우리 한시 삼백수' 5언절구 편을 펴냈다. 삼국부터 근대까지 300수를 가려 풀어낸 시들은 원시만큼 잔잔한 울림을 준다.

공자는 '시경'을 묶으며 "시경의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思無邪)"라고 했다. 시를 쓴 이의 마음에 삿됨이 없다는 뜻이니 읽는 사람이 정화가 된다는 뜻이다. 정민 교수가 300수의 상징성을 굳이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번 편역 작업을 하면서 사물이 끊임없이 교감의 신호를 보내는 것에 주목했다.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것도 자연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한시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주는 효과다. 작금의 세상을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현대인의 욕망을 향한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김영사·1만9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꿈·열정 찾아… 식민지 조선 엘리트들 '신세계' 유람

경성 엘리트의 만국 유람기

허 헌 외 지음

어쨌든 여러 가지 모습이다. 다만 주의해 볼 것은 원래 프랑스인지라 시위 행렬 중에 쌍쌍이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피곤할 때마다 아이를 서로 안아주는 것쯤이야 별로 이렇다 할 것은 없다. 그러나 시위 행렬 바로 그 한가운데에서까지 키스하는 것은 너무나 프랑스적 특성이 아닌가 한다. 왜 그러냐면 카페에서나 큰길에서나 사랑하는 사이에는 좍좍 소리를 내며 키스하는 것이 프랑스의 풍속이니까! (본문 중에서)

1920년대는 식민지 조선 엘리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던 시기다. 이전에는 더러 일본과 중국으로 가는 이들이 있었지만 서구로 여행을 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럴 만도 했다. 파리까지 가는데 기차 3등석이 320원,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 행 배삯이 110원이었다. 당시 엘리트 직종이었던 의사 월급이 100원, 기자 월급이 70원 이었으니 프랑스를 가려면 최소한 4~5개월분의 월급을 죄다 모아야 가능했다. 그것도 교통비로만 말이다.

1930년대 말 남편 안막, 딸과 함께 찍은 최승희씨.

베를린 올림픽 참가당시 장거리 주자 파보누르미와 함께한 손기정 선수.

그런 즈음에 서구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있었다. 당대의 엘리트들은 세계 문물을 접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남달랐다. 비싼 여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행을 감행했던 것은 세계에 대한 간접 체험 때문이었다. 물론 사재를 턴 경우도 있었지만 종교계의 도움, 외국의 초청, 공연이나 대회 참가 등 다양한 방식이 매개가 되었다.

성균관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성현경 씨가 엮은 '경성 엘리트의 만국 유람기'는 당대 지식인들의 여행 체험이 수록돼 있다. 이들 엘리트들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당시 대중잡지 '삼천리'에 기행문을 발표했다. 어림잡아 한 세기가 흘렀지만 이들의 여행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기행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주는 현장감 때문이다.

조선에서 처음 기차를 본 이는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기수였다.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일본으로 갔던 그는 기차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기적소리는 번개와 같았고, 속도는 바람과 비처럼 빨라 밖의 풍경을 걷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분명, 실제로 보았다"는 한줄의 팩트로 답답함을 표현했을 뿐이다.

조선 3대 인권 변호사였던 허헌의 미국 체험도 흥미롭다. 1927년 하와이,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시카고에 도착한 그는 호텔 투숙 가격에 실색했다. 하룻밤에 무려 100원! 조선의 3대 변호사(미국 대통령까지 만나는 대표급 지도자)로 잘 나가던 그였지만 미국의 자본주의는 신세계나 다름없었다.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나 경제학사를 취득했던 최영숙의 삶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그녀는 인재가 부족한 조국을 위해 불철주야 경제학을 공부했다. 유학을 마치고 조선으로 귀국해서는 다시 인도에 가서 간디를 만났고, 귀국해서는 고국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조국으로 돌아온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암담 그 자체였다.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그녀는 콩나물 장사를 하다가 건강 악화로 죽음에 이른다. 그녀 나이 고작 28세였다.

도쿄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난 정석태의 고민은 화장실이었다. 조선식 식습관에 길들여진 탓에 유럽의 기름진 음식은 곧잘 탈을 일으켰다. 당시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서양식 좌변기였다. 도무지 익숙하지 않았던 좌변기로 고충을 겪었을 당대 최고 엘리트를 생각하면 왠지 쓴웃음이 나온다.

책에는 세계가 사랑한 '한류스타' 무용가 최승희, 시대를 앞서갔던 비운의 화가 나혜석, 세계의 강단을 누볐던 명연설가 박인덕, 베를린 금메달리스 마라토너 손기정 등의 해외 기행이 실려 있다. 이들의 여행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근대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저자는 "당대 엘리트들의 여행은, 출발과 도착만 남고 과정이 삭제되어 버린 지금의 여행에서는 느끼지 못할 정취가 남아 있다"며 "이제, 그들이 거닐었던 근대의 길을 우리가 걸어볼 차례"라고 말한다. 〈현실문화·2만1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집·방·건물… 영화 속 공간에 숨겨진 욕망 분석

욕망하는 집

박규상 지음

영화 '은교'에서 은교는 왜 열심히 유리창을 닦을까? '박쥐'의 뱀파이어들은 왜 집 안을 온통 하얗게 칠할까? '하녀'에서 하녀는 왜 계단에서 떨어져 죽어가야 했을까?

집과 공간 속에 투영된 인간의 욕망을 내밀하게 들여다본 책이 나왔다.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박규상 씨의 '욕망하는 집'은 심리학을 토대로 영화 속 공간에 숨겨진 다양한 욕망을 분석한다. 집, 방, 건물, 도시 등은 일차적으로 무대장치의 일부지만 주인공의 성격, 분위기, 주제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공간이다. 저자의 시선이 창문-통로-벽장-계단-집-도시 순으로 이동하며 그 속에 담긴 욕망의 심리를 읽어내는 이유다.

밖에서 안을, 안에서 밖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은 일탈의 욕망을 상징한다. '은교'에서 은교는 시인 이적요의 거실 유리창 닦는 일을 좋아한다. 이런 은교를 보는 시인은 젊음과 여성성에 매료되고 이후 영화 전개를 이끄는 동인이 된다. 집에서 두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는 탐닉하고 싶은 마음과 이를 멈춰야 하는 절제를 암시한다. 영화 '박쥐'에서는 드러나는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욕망에 주목한다.

높이에 대한 욕망을 잘 보여주는 공간 가운데 하나가 '계단'이다. 인간은 타인보다 높이 앞서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현대의 경쟁사회는 더더욱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는데 '하녀'의 계단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인간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점차 욕망을 키워가고 새로운 욕망에 눈을 뜬다. 그리고 많은 욕망을 집에 투영하고 살아간다. 투영된 욕망이 해소되면 다시 다른 욕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증폭시키기도 한다." 〈서해문집·1만49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中 본토서 '삼국지 역사·문화' 10년 답사기

삼국지, 역사를 가다

남덕현 지음

소설 '삼국지'에 대한 한·중·일 세 나라의 인기와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관우를 신으로 모실 정도로 삼국지문화 현상이 폭넓게 자리잡아 중국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정도다.

삼국지 연구 전문가로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대학교 남덕현 교수가 국내 삼국지 독자들을 위해 당시 영웅호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삼국지, 역사를 가다'를 펴냈다. 오늘날 중국 본토에서 삼국지 문화가 어떻게 이어져오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10여 년에 걸쳐 심층 답사해 온 삼국지 역사·문화 답사기다.

저자는 삼국지를 좋아하는 국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 현장의 모습을 가급적 현재의 모습으로 담아냈다. 역사의 흐름과 소설 속 이야기의 전개에 따른 핵심 주제를 선정해 삼국지 소설의 주요 내용을 적고 함께 그와 관련된 실제 유적들을 소개하는 친절도 잊지 않았다. 〈현자의마을·2만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